

민족의 영광과 행운으로 빛나는 10년

인민이 어머니로 따르는 조선통당

어머니라는 말은 인간에게 있어서 사랑과 정의의 총체이다.

사실없는 사랑, 편견없는 정을 자식들에게 짙고리 부어주고 바치는 헌신과 로고를 곧 기쁨으로 락으로 여기는 것이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공화국의 인민들은 조선로동당을 어머니당이라고 부른다. 한두사람도 아니고 백, 천도 아닌 온 나라 인민이 어머니라 부르며 우리따르는 조선로동당의 력사의 이야기들을 그 한토막만 들어 보기로 하자.

천만가지 안아키우는 위대한 어머니

《공화국에는 수많은 아름다운 어머니들이 있다. 처녀 어머니, 모성영웅, 박사어머니... 현대 그 어머니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어머니가 계시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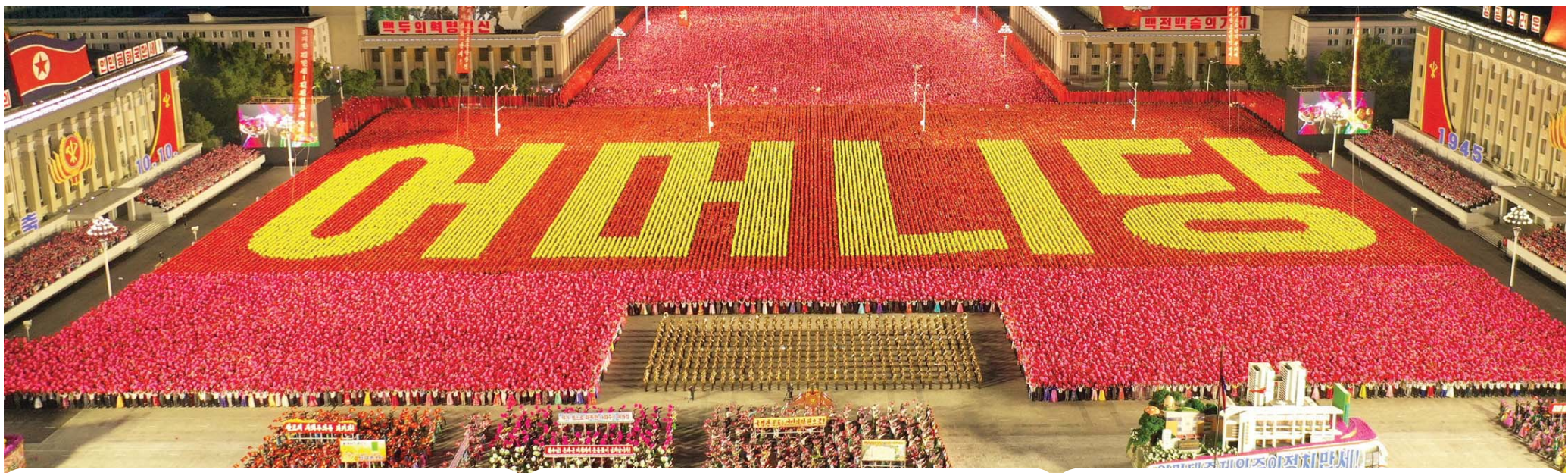
이것은 몇해전에 열렸던 전국어머니대회를 보고 해외동포녀성이 인터넷에 올리었던 글이다.

지구상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고 나라들마다 자기의 사상과 리념을 가진 당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조선로동당처럼 인민들에게 어머니라 불리우며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를 자기의 존재방식으로 하는 그런 당은 없다.

조선로동당의 대표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령도의 첫 시기부터 어머니의 사랑과 정으로 인민들을 품어안으시고 끝없는 헌신과 로고를 바쳐가셨다. 공화국인민들이 그 어떤 고난과 시련속에서도 굴할 줄 모르고 만반을 이겨내는 위대한 인민으로 자라난데는 그 성장의 걸음걸음을 이끌 어준 다정한 어머니의 로고 그 덕이다.

어머니는 생명을 주고 끝없는 사랑을 주며 자식의 운명을 위해 강고히 헌신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멸사복무의 초인간적인 헌신으로 인민의 마음속에 담을 어머니의 모습으로 새겨주시었다.



어머니는 새벽문을 먼저 열고 잠자리에 제일 늦게 든다. 아마도 이 나라의 새벽 문을 제일 먼저 여는분은 경애하는 원수님이실 것이다. 새해의 첫 아침이면 인민을 위한 한해를 시작할 맹세가 담긴 신년사를 발표하시고 온 한해 동트는 이 나라의 새벽길을 남 먼저 걸으시는 그이이다. 래풍과 큰물로 인민들이 피해를 입을까 걱정되시며 밤을 꼬박 밝히고 이른새벽부터 차를 달려 큰물이 휩쓸 지역으로 서슴없이 가시는 어머니, 다스리신 그 어머니의 발걸음이 닿아있는 곳마다에서는

눈부신 기적들이 펼쳐졌다. 그뿐이었던가. 자식들이 요람속에서 단잠에 든 깊은 밤에도 잠 못드는 어머니처럼 그이께서는 밤길도 귀찮음이 걸으셨다. 수도의 깊은 밤 인민들에게 안겨주시는 새 무개도전차를 먼저 타보시며 이어가신 길, 문수물놀이장과 류경안과 종합병원, 수없이 일떠선 새 거리와 유원지, 휴양지와 건물들마다에는 자정도 넘은 밤 찾아오시며 하나의 미흡한 점도 없이 가장 좋고 훌륭한것을 인민들에게 안겨주시며 마음쓰신 어머니의 로고의 숨결이 어려웠다.

안겨주는 당, 그 당의 품속에서 인민은 천만복을 누려가고있는것 아닌가. 얼마전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 정원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평범한 근로자들과 예술인, 지식인들이 참가한 성대한 경축연회가 진행되었다. 조국을 위해 인민을 위해 구슬땀을 바쳐 일한 이들을 애국자라고 높이 평가해주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들 한사람한사람에게 축배 잔까지 쥘어주시었다. 당중앙위원회의 트랙에 모여앉은 한평생의 모습을 봐도 모두가 평범한 인민이었다.

《혼연일체의 현장, 그곳의 진실》 (2)

인민의 눈물너머로 알게 되는 진실



눈물은 인간의 꾸밈없는 눈물이며 여기에는 언제나 진실이 담겨져있는 법이다. 그런 눈물은 비록 눈가에 흐르고있어도 들여다보면 심장에서 흘러나오는것이며 그만큼 솔직하고 신성한것은 없는것이다. 하다면 공화국의 인민들이 그렇듯 진실으로 흠모하는 령도자는 어느분이신가. 공화국인민들이 어머니라 부르며 따르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시다.



세상에 없는것도 만들어놓아야 한다는 것이었으며 인민이 드리는 감사의 인사를 받으셔야 할 명절의 그밤에도 러놓으신것은 이렇게 모두가, 우리 인민모두가 무병무탈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마음속진정, 마음속고백이었다.

공화국을 방문하였거나 체류한 타국의 벗들이 자주 화제에 올리는 물음들 중의 하나가 있다. 《왜 조선인민은 자기 령도자만 뵈오면 감격하여 눈물부터 흘리는가?》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물음이다. 왜 그렇지 않았겠는가.

그럼 그 어머니가 가시는 곳은 어디이고 그이께서 만나주시는 사람들은 누구이며 그이께서 하시는 말씀은 누구에 대한 말씀인가. 언제나 인민이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시는 곳은 흠뻑이 날리는 살림집과 문화유원지, 인민을 위해 건설되는 나라의 방방곡곡 그 모든 곳의 건설장들이었고 뜻밖에 한지가 나앉은 주민들이 있는 자연재해현장이었으며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풀기 위해 낫과 방이 따로없이 찾으신 농장이었고 과수원이었으며 물고기 비린내가 구내를 진동하는 수산기지들이었다.

진정 경애하는 그이께서 하시는 모든것은 하나부터 열까지가 전부 인민의 행복, 인민의 안녕과 관련된것이다. 그렇게 따뜻한 사랑을 주시고 혈육의 정을 주시는 령도자를 왜 공화국인민들이 어머니라 부르며 따르지 않을수 있었는가.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는 한몸이 설사 현안의 모래알이 되어 길 위에 뿌려진다고 하여도 더 바랄것이 없다는 숭고한 인생관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라고 그러는 이 나라 인민들의 눈가에 어찌 고마움의 눈물, 보답의 눈물, 맹세의 눈물이 흐르지 않을수 있었는가.

이 나라 그 어디서나 너무나도 레사를 게 불추고 그걸수 있는 현실이 아닌가. 공화국인민들은 자기 령도자의 존함을 한번 부르지만 해도, 령도자의 모습을 먼발치에서 뵈우고 령도자의 음성을 한번 듣기만 해도 눈물부터 머금는다. 이를 두고 외국의 한 인사는 이렇게 말했다.

진정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자기들을 그렇게 사랑해주고 위해주고 보호해줄수 없다는 생각이, 원수님의 품이 아니라면 오늘의 행복도 찬란한 미래도 없다는 확신, 경애하는 원수님밖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 이 모든것을 이 나라 인민들은 한마디에 담아 부른다. 《그이 없인 못살아!》

그 길에 걸맞는 로고 그대에게 보답하고 락이었던가 자식들의 웃음과 기쁨에서 쌓였던 피로 다 잊으시고 열과 정 부여하시는 어머니이시여

《조선은 령도자와 인민의 관계가 매우 특이한 나라이다. 인민은 령도자를 만나뵈는것을 일생의 소원이로 여기고있으며 만나뵈오면 남너로소모두가 기쁨의 눈물을 짓는다. 내가 살고있는 나라에서라면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다.》

또 새로 일떠선 살림집에서, 학교들에서, 병원들에서 원수님 만나주시는 사람들은 행복에 겨워하는 남너로소였고 자기 손으로 준공페트를 끊고 들어선 애육원과 육아원, 양로원의 아이들과 노인들이었으며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제일먼저 탄원해가는 미풍의 주인공들이고 년간계획을 남먼저 수행한 로력혁신자들이었다.

모든것을 이 나라 인민들은 한마디에 담아 부른다. 《그이 없인 못살아!》

공화국은 령도자와 인민사이의 관계가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할수도 없이 특이하다. 과연 이런 나라, 이런 인민이 어디에 또 있는가. 감격의 눈물. 물론 눈물은 사람의 눈에서 생리적으로 흘러나오는것이다. 그러나 감격의

그 어머니를 가시여서도 그 누구를 만나시여서도 그이께서 하시는 말씀은 인민들이 좋아하는것이고 인민들을 위해서는 천만금도 아끼지 말아야 하며

본사기자 리연선



시 축하를 받으시라 어머니이시여!

김송림

뜻깊은 10월의 아침 축하의 꽃밭 노래로 삼가 드리 러니 사무치는 고마움에 가슴은 젖고 솟구치는 격정에 눈시를 뜨거워라

목매어 바라보노라 어머니의 천만고생이 자식들의 락으로 꽃핀 오늘에도 못다 준 정 일신듯 세심히 헤아리시는 정깊고 사려깊은 그대의 눈빛을

우리의 행복 가꾸어가시는 헌신의 길 위에 보답의 땀방울 아낌없이 뿌려가리

슬하에 자식들 많아 인제 한번 말편히 쉬신적 있었던가 가지많은 나무 바람갓을 날 없듯 천만자식 품어안아 고생도 많으신 어머니

얼마나 크나큰 영광이라 이런 어머니의 보살핌속에 자식으로 안겨산다는것은 얼마나 복된 삶이라 이처럼 자애로운 어머니의 품에 운명도 미래도 다 맡겼었기에

그대 펼치는 희망의 새 아침 그대 펼치는 영원한 승리를 위해 우리 삶의 목표가 있거니 그대 부여준 숭결은 하나로 맥동치고 뭉쳐진 불굴의 역센 힘은 폭풍노도쳐 세계를 앞서가리라

그 길에 걸맞는 로고 그대에게 보답하고 락이었던가 자식들의 웃음과 기쁨에서 쌓였던 피로 다 잊으시고 열과 정 부여하시는 어머니이시여

이 어머니앞에 땀뺀하고 더없이 미더운 자식들 마음 그대의 어깨에 실린 무거운 짐 한몸바쳐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리

축하를 받으시라 어머니이시여 환하게 웃으시는 그대의 미소속에 변형할 내 조국의 모습 비껴나니 한마음 충정다해 높이 받들어모시리 고마운 어머니 제일로 기뻐하시게 위대한 어머니 영원으로 존엄떨치게!

어머니당의 뜻깊은 생일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영광의 단상에 섰던 그날의 감격이 또다시 가슴에 그들먹이 차오름을 금할수 없다. 그대로부터 어드넛 할말이 지났다. 하긴만 지금도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를 품가이 모시였던 행복의 그 시각이 품속에서 흘러간것만 같다.

마치도 어머니의 옷자락에 안겨드는 자식들마냥 저저마다 어려움도 있고 그이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이름을 아뢰이 그 해놓은 일들을 자랑하였다. 그들속에는 교령의 나이에

우리들이 경애하는 그이를 한 가정의 아버지로 모시고 혈육의 정을 나누며 찍은 이 영광의 정사건이아말로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사랑의 가족사진이 아니겠는가. 나는 사랑의 가족사진을 가보로 간직하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력사적인 시정연설에서 제시하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향상시킬데 대한 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

적어주시고 성대한 연회까지 마련해주실줄이야...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사랑의 축배잔을 쥘어주시며 크나큰 축복을 안겨주시었다. 마치도 어머니의 옷자락에 안겨드는 자식들마냥 저저마다 어려움도 있고 그이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이름을 아뢰이 그 해놓은 일들을 자랑하였다. 그들속에는 교령의 나이에

모여앉은것만 같았다. 과연 우리들이 누구인가. 이 나라의 그 어디서나 불수 있고 만날수 있는 너무나 소박하고 평범한 공민들이다. 또 나는 누구인가. 꽃나미 처녀시절부터 친을 짝 평범한 직포공이 아닌가. 그런데 나라에서는 지난 20여년간 다세대운동의 봉화를 추켜든 나를 공훈방직공으로, 시대의 전형으로 내세워주었다.

적극 노력해나갔다. 그리하여 인민생활에 이바지하는 질풍은 천을 많이 짜며 나뉘어 아니라 작업반의 모든 직포공들이 영예의 혁신자가 되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주었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직포공 리명순

수기 사랑의 가족사진을 보며

도 우리 조국의 기상을 민방에 펼쳐가는 인민방송원도 있었고 모두의 사랑을 받은 녀성가수도 있었으며 마라손너왕도 있었고 영화예술인들도 있었다. 또 평범한 농장원도, 탄부도 있었으며 과학자도, 나어린 소년단원들도 있었다. 나도 그들처럼 무뎠음이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직포공 리명순입니다.》라고 삼가 인사를 올렸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나에게도 사랑의 축배잔을 쥘어주시었다. 정말이지 화목하고 단란한 한가정, 한식술이

모두가 응당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고 수십년간 맡겨준 일터에서 자기의 본분을 다했을뿐인데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의 성스러운 애국의 력사속에는 지켜선 일터와 초소마다에서 근로의 땀을 뿌리며 나라의 재부를 높이고 과학과 문화전선의 선두에서 조국의 영예를 떨치며 사회주의문명의 개화기를 열어나가는데 크게 공헌한 로력혁신자, 근로자들의 공적이 진하게 스며있었다고 값높이 평가해주셨다. 나는 영광의 그날 경애하는 그이를 모시고 찍은 사랑의 기념사진을 보며 생각한다.

